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관계종결에 대한 영향*

Constituents of Friendship: Their Impact on The Termination of Relationships

김 선 희

Kim, Sun Hee

김 경 연**

Kim, Ky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differences between reciprocal and unidirectional friendships and to examine evidence on whether certain constituents of friendship can predict the termination of friendships. A total 375 subjects- 190 elementary and 185 middle school children in Pusan- wer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wo times at an interval of 3 months. Frequency, factor-analysis, t-test, discriminant-analysis, and cross classificat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ifferent constituents of reciprocal and unidirectional friendshi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children in reciprocal friendships perceived their relationships more positively, felt closeness more strongly, and evaluated their friend more highly than the children in unidirectional friendships. 2) The termination of reciprocal friendships was predicted by the constituents of friendship.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the degree of closeness and the second powerful predictor was the degree of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and the 3rd powerful predictor was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friend. The last powerful predictor was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3)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the rate of termination of reciprocal relationships. 4) There were age differences in the rate of friendship termination of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is, the rate of termination of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older children was higher than among younger children.

* 본 논문은 1994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문제제기

아동의 사회적관계 범위가 가족 밖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의 생활에서 우정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두 사람이 상호의존하는 개인적 수준의 관계”(윤진, 1984, P95)라고 정의되는 우정관계는 아동이 맺고 있는 여타의 사회적관계와는 달리 보다 큰 자유와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전과는 다른 대인적 탐색과 실험을 가능케 하며(Hetherington & Parke, 1993), 사회적 기술의 학습 기회(Bucatto & Daehler, 1992; Hartup, 1992), 정서적 인지적 자원 및 친밀감 발달을 위한 상황(Clarke-Stewart, Perlmutter & Friedman, 1988)등을 제공한다. Sullivan(1953, 이상호 & 이관용, 1987 재인용)에 의하면 발달초기 동안 동성의 단짝친구(chum)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절망적 고립감에 빠지며 친밀감 형성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이후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정관계도 이성관계, 결혼관계 등 여타의 친밀관계와 마찬가지로 형성, 지속 및 종결을 거치는 역동적 과정이다. 여기서 종결이란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감소 및 상호회피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친한 친구관계를 이미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관계의 형성 및 지속이 개인간의 만족스런 자원교환에 의한다는 Hartup(1992)의 “교환이론”이나 매력 결정인자에 의한다는 Baron & Byrne(1991)의 “대인간 매력의 관점” 모두 역동적 우정관계의 각 과정에 우정관계 관련변인이 관여됨을 설명하고 있다. 우정관계 관련변인란 관계의 형성, 지속 및 종결에 관련되는 모든 변인을 의미하는데 주어진 우정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정관계의 각 과정에 관련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이해가 요구된다. 보통 우정관계에 대한 아동의 자

유기술적 응답을 통해 파악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을 통한 영역구분이 요구되는데 제시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영역들도 연구자들(이주옥, 1984; Bigelow & La Gaipa, 1975; Sharabany, Gershori & Hofman, 1981; Furman & Bierman, 1984)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주옥(1984)은 근접성, 공유활동 등 22개의 영역을, Sharabany 등(1981)은 솔직함과 자발성, 민감성과 앓 등 8개 영역을, 그리고 Lowenthal, Thurnhur 및 Chiriboga(1975, 윤진, 1988 재인용)는 유사성, 상호성 등 6개 영역을 제시한다. 이들 영역을 개념적 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내적 외적 상호작용에 관련되는 관계적 측면, 지리적 근접성과 인구통계학적 유사성 등 관계 외적 부분인 구조적 측면, 그리고 우정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는 평가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관계적 측면은 다시 관계에서의 즐거움, 도움, 만족과 신뢰 등과 같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특성, 관계의 지속을 위한 친구에 대한 배려인 관계헌신, 그리고 두 개인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의미하는 친밀도 등으로 구분된다.

우정관계의 유형을 친구선택의 상호성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로 구분된다. 상호적 우정관계는 친구선택시 가장 친한 친구로 쌍방적인 지명을 한 경우이고 일방적 우정관계는 일방적인 지명만 했을 뿐 상대방의 지명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상호적 우정관계는 Sullivan(1953, 윤진, 1988 재인용)이 제시한 동성의 단짝친구와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인 우정관계 유형으로 간주된다. 상호적 우정관계는 높은 친밀감과 심리적 관여에 근거하므로 (Epstein, 1984) 일방적 우정관계와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기술 및 사회인지적 발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에서의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Hayes, Gershman & Bolin, 1980; Ladd & Eerson, 1984; 김영희, 1986)은 우정관계 관련변인 중 관계적 측면에서의 차이만 제시하고있으며 대상 아동도 학령전기 아동이나 학령초기 아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서도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간에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또 관계적 측면이 외의 우정관계 관련변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또한 상호적 우정관계는 그 형성과정에서 상호 선택이라는 특수성을 포함하므로 종결과정도 여타 우정관계와는 다를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우정관계 종결이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상호회피적 상태 즉 관계의 소원(疎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적 우정관계에서는 처음에 서로가 친한 친구로 지명한 관계가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호지명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우정관계 역동에 관련된 연구들이 형성 및 지속과정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Hartup(1992)의 지적처럼 우선 우정관계 종결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상호적 우정관계를 대상으로 종결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정관계 종결에 관여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을 다룬 연구로 이주옥(1984)과 Berndt, Hawkins & Hoyle(1986)의 것이 있지만 이들 연구는 상호적 관계 뿐아니라 일방적 관계도 함께 분석했기 때문에 상호적 관계에서의 우정관계 종결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한편 우정관계의 종결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결과들(Thompson & Horrocks, 1947, Hartup, 1983

재인용; Berndt, 1981; Berndt 등, 1986)을 보면 경향성만 검출되었을 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데 그 이유가 표본크기가 너무 작은데 있는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에 있어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차이는 어떠한지, 둘째,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이 어떠한 우정관계 관련변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울러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정관계 관련변인 중 구조적 측면을 제외한 관계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만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근접성과 인구통계학적 유사성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은 우정관계 지속과 종결보다는 형성에 주로 관여하는 측면이기 때문이다(심상문, 1992).

이와같은 연구목적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관계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은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관계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의 우정관계 관련변인 중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 여부를 판별해 주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은 무엇인가? 또한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 여부는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우정관계 유형과 우정관계 관련변인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는 또래관계가 중심이 되며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하고 모취업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또래관계(peer relation)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모든 인물(주로 동년배)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또래관계 중 우정관계는 독특한 양상이다. 또래관계가 비자발적인 2차적 집단으로 구성원이 수적으로 많고, 우정관계에 비해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적은데 비해 비교적 적은 수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우정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1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Epstein, 1984). 우정관계는 다시 친구선택 유형이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친구선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동등한가 동등하지 않은가로 나뉘어진다(Epstein, 1984).

친구선택의 상호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상호적 우정관계는 단짝관계(chumship)라 명명되기도 하는 친밀한 관계로 아동기에서 청년전기에 이르기 까지 가장 일반적인 우정관계 유형임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상호적 우정관계는 서로를 친한 친구로 선택하여 형성된 관계이므로 상대방을 친구로 선택하기만 하고 상대의 선택은 받지 못한 일방적 우정관계와 비교할때 우정관계 관련변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호적 우정관계는 일방적 우정관계에 비해 공동활동, 긍정적 상대평가 및 일반적놀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Hayes, Gershman, & Bolin, 1980) 친구간의 공유지식도 더 많다(김영희, 1986., Ladd & Emerson, 1984). 따라서 상호적 우정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더 성숙한 조망능력(Jones & Bowling, 1988, Hartup, 1992 재인용)과 유능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케 된다(Howes, 1983). 이 연구들은 우정관계 유형에 따른 우정관계 관련변인 중 관계적 측면만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서 우정관계 관련변

인의 다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우정관계의 종결과 관련 변인

우정관계도 여타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형성, 유지, 종결등 일련되는 과정을 거치는 역동적 특징을 갖는다. Hartup(1992)은 우정관계의 역동적 과정을 알게됨(acquaintance), 관계수립(build-up), 지속(contiuation), 악화(deterioration), 종결(termination)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관련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알게됨」단계는 인구통계학적 유사성, 같은 동네, 같은 학교와 같은 물리적인 근접성과 유관하며 「관계 수립」단계는 상호성의 증대, 의사소통량의 증가 및 심리적인 유사성등과 관련된다. 「관계수립」에서 「지속」단계로의 전환은 상호작용의 증가와 관계에 대한 헌신(Levinger, 1983)에 의해 결정되며 상호간의 불일치와 갈등, 소원(alienation)등 우정관계 관련변인은 관계의 「악화」와 관련되며 악화된 관계가 상호헌신의 부족과 결합되면 「종결」로 귀착된다. 이와같이 관계의 종결을 끝으로 우정관계의 역동과정이 끝나게 된다.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우정관계 종결에 관련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으로 친밀감, 유사성, 친구선택, 상호작용 빈도(Berndt et al, 1986) 좋아함, 만족감, 보상, 평등, 자아노출등(Berg, 1984)을 제시한다. 즉 이들 관련변인의 감소가 우정관계의 종결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정관계의 역동과정 중 종결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우정관계 관련변인지만 이외에도 아동의 성과 연령이 고려된다. 우정관계 종결과 아동의 성에 관한 Berndt 등(1986)의 연구에서는 4학년의 경우는 여아(30%)가 남아(23%)보다, 8학년의 경우는 남아(44%)가 여아(32%)보다 종결되는 빈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우정관계 종결과 아동의 연령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들(Thompson & Horrocks, 1947, Hartup, 1983 재인용; Berndt, 1981)은 불일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우정관계 종결과 아동의 성 및 연령에 관한 경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증적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한 부산시 소재의 2개 국민학교 및 남여중학교 각 1개교 총 4개 학교로 부터 추출하였는데 국민학교 5학년 4개 학급 및 중학교 2학년 4개 학급 총 8학급을 선정하여 학급 전체 학생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표본 선정시 Sullivan(1953, 윤진, 1988 재인용)이 지적한 바에 따라 발달단계상 단짝친구관계가 일반적인 시기인 아동후기와 청년초기에 있는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최초 추출된 표본의 수는 384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자 9명을 제외한 총 375명을 연구대상자로 사용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75)

변 인 구 분		N(%)
학년과 성	국민학교 5학년 남	100(26.7)
	여	90(24.0)
중학교 2학년	남	95(25.3)
	여	90(24.0)

<표 1>에 의하면 국민학교 5학년이 190명(50.

7%), 중학교 2학년이 185명(49.3%)이었고, 남학생이 195명(52%), 여학생이 180명(48%)으로 조사대상자의 학년과 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2. 변인측정

(1) 우정관계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을 두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관계적 측면은 관계특성, 관계헌신정도 및 친밀도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평가적 측면은 아동이 평가한 친구특성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적 측면

① 관계특성

관계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 & Bhrmester(1985)의 관계 조직망 검사(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를 김수민(1988)이 번안한 척도의 일부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사회적 관계 7영역과 부정적 사회적 관계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당 3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는 '전혀'에서 '매우'까지의 5점의 평정범주가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영역중 부정적 사회적 관계 3영역을 제외한 7영역 2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했는데 각 관계특성 명칭은 문항 내용에 보다 잘 부합되는 용어로 재명명하였다. 본조사대상 375명이 응답한 자료에 대하여 실시한 신뢰도 α 값은 .93이다. 여기서 부정적 사회적 관계 3영역을 제외한 이유는 응답자의 사고의 흐름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② 관계헌신정도

관계 헌신정도 척도는 심상문(1992)의 '중학생의 학급내 교우실태와 교우관계 형성요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이 자료는 남·녀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친구 및 우정관계에 대해 자유기술토록 한 것이다. 상기 자료 중 '그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총 13문항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6점의 평정 범주를 부여하였다. 6점 평점 점수를 선정한 이유는 분석시 응답자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응답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예비조사에서 이와같이 구성된 13문항의 질문지를 임의추출한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132명에게 응답케하였다. 수집된 응답지에 대하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3문항 모두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본조사 대상 375명이 응답한 내용을 대상으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α 값은 .87이었다.

③ 친밀도

상호적 우정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애정정도¹⁾와 상호작용정도를 합한 점수를 사용했다. 서로에 대한 애정정도는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한 것으로 응답범주가 '조금'에서 '매우많이'까지의 5개이므로 1점에서 5점까지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업 시간 외에 지명한 친구와 만난 횟수'로 측정하였는데 응답범주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에서 '거의 매일 만났다'까지의 4개이며 점수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그러므로 친밀도 점수는 두 문항의 응답치를 합산한 2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2) 평가적 측면

평가적 측면인 친구특성의 측정척도는 심상문(1992)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추출된 문항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상기 자료 중 자신의 친구에 대해 자유기술케 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여 30문항을 추출했다. 추출된 30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의 6점 평정 범주를 부여하여 예비조사시 임의 추출한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132명에게 응답케하였다. 응답된 질문지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 방법의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아이젠값이 1 이상인 4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인 21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행렬표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별 신뢰도 α 값은 성실성요인이 .80, 유사성요인이 .80, 사려성요인이 .76, 명랑성요인이 .66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척도제작을 위한 1회의 예비조사 및 2회의 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예비조사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중 관계적 측면에 해당되는 '헌신정도 척도'와 평가적 측면에 해당되는 '친구특성 척도' 제작을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1993년 7월말에 임의추출한 부산시내 과외학원을 방문하여 학원강사를 통해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132명에게 응답케한 뒤 회수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여 1993년 11월 15일-20일과 약 3개월 뒤인 1994년 2월 15일-21월 21일간 두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1, 2차 조사 모두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급의 담임선

1)關係特性的 '애정'은 친구의 애정에 대한 兒童의 知覺인 반면, 親密度에서의 '애정'은 아동의 친구에 대한 애정정도를 말한다.

생의 지시하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t-test, 판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통계 패키지를 이용

〈표 2〉 친구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 1 (성실성)	요인 2 (유사성)	요인 3 (사려성)	요인 4 (명랑성)
3 친구는 예의가 바르다	.68	.06	.32	.03
1 친구는 품행이 단정하다.	.68	.22	.16	-.03
5 친구는 책임감이 강하다	.67	.11	.08	.26
10 친구는 선생님께 칭찬을 자주 듣는다.	.63	.09	.12	.17
9 친구에게 배울점이 있다.	.58	.15	.26	.16
40 친구는 남을 잘 돕는다.	.48	.10	.40	.10
24 부모님이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신다.	.46	.43	.06	
20 친구와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눈다.	.11	.68	.08	.24
17 친구와 나는 취미가 비슷하다.	.09	.68	.02	.13
16 친구와 나는 성격이 비슷하다.	-.05	.66	.19	.25
13 친구와 나는 마음이 통한다.	.06	.64	.30	.30
23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을 가져준다.	.24	.63	.34	.05
41 친구와 나는 항상 함께 다닌다.	.30	.63	-.07	-.08
8 친구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12	-.03	.81	-.03
7 친구는 너그러운 편이다.	.25	.13	.73	.12
4 친구는 인간성이 좋다.	.37	.13	.60	.10
19 친구는 항상 웃는다.	.10	.18	.52	.37
21 친구는 남의 잘못을 잘 덮어주는 편이다.	.30	.30	.51	-.02
14 친구는 명랑하다.	.01	-.15	.15	.79
12 친구는 유머감각이 있다.	.04	.26	.07	.69
15 친구는 용기가 있다.	.33	.10	.01	.68
아이젠값	8.0	2.3	1.5	1.3
분산의 백분율(%)	30.9	8.7	5.8	5.1
분산의 누적 백분율(%)	30.9	39.5	45.3	50.4

IV. 결과 및 해석

1.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에 따른 우정관계 관련변인 각 측면의 차이

우선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1차 본조사 측정치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친한 친구로 서로를 지명한 상호적 우정관계는 206명(103쌍)이었고, 일방적 우정관계로 분류된 대상은 169명이었다. 분류된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를 대상으로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평균차이를 검토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에서의 우정관계 관련변인에 대한 t-test 결과표

(N=375)

	상호적 우정관계(N=206)	일방적 우정관계(N=169)	t 값
	M(SD)	M(SD)	
관계적 측면			
관계특성			
즐거움	10.77(2.55)	9.60(2.44)	4.50***
도움	9.93(2.79)	9.00(2.69)	3.23***
만족	12.52(2.37)	11.24(2.64)	4.92***
신뢰	10.43(3.01)	9.22(3.14)	3.77***
애정	11.37(2.68)	10.22(2.53)	4.20***
인정	11.12(2.57)	10.13(2.44)	3.77***
지속	11.52(2.91)	10.55(2.90)	3.20**
관계헌신정도	52.77(10.71)	50.23(11.05)	10.11*
친밀도	4.23(.82)	3.91(.96)	3.46***
평가적 측면			
친구특성			
성실성	29.25(6.01)	29.22(5.94)	1.37
유사성	26.73(5.59)	23.99(5.74)	6.69***
사려성	22.03(4.73)	22.04(4.68)	-.02
명랑성	13.39(3.10)	13.01(3.45)	1.11

*p<.05 **p<.01 ***p<.001

<표 3>에 의하면 관계특성의 7개 하위영역 모두와 관계헌신정도에서 일방적 우정관계 집단보다 상호적 우정관계 집단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도 역시 일방적 우정관계보다 상호적 우정관계에서 더 높았다(P<.001). 그러나 평가적 측

면인 친구특성은 하위영역 중 유사성요인만이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전반적으로 볼때 상호적 우정관계 집단이 일방적 우정관계 집단보다 우정관계 관련변인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 여부를 판별해 주는 우정관계 관련변인

상호적 우정관계 집단을 지속된 집단과 종결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정관계 관련변인들이 이 두 집단을 판별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1차 본조사 측정시 상호적인 우정관계로 규정된 206명중에서 2차 측정시 지속된 관계는 106명(53쌍)이었고, 종결된 관계는 100(50쌍)으로 전체

의 약 51%가 지속된 관계였다.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 여부를 판별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들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표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판별분석은 1차 본조사 측정치인 관계특성, 관계헌신정도, 친밀도, 친구특성등 우정관계 관련변인을 판별변인으로 하고 2차 본조사에서 밝혀진 우정관계의 종결여부를 분류변인으로 하여 변인을 일괄투입하는 'DIRECT' 방식을 사용했다.

<표 4>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 여부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표 (N=206)

판별함수식 Function-1	정준상관계수 .25	Wilks Lambda .94	χ^2 13.15	Sig(P) .01
판별변인		비표준화된 판별계수		표준화된 판별계수
관계적 측면: 관계특성			-.01	-.19
관계헌신 정도			-.04	-.42
친밀도			.61	1.00
평가적 측면: 친구특성			.02	.30
상 수			-3.01	
집단 중앙치		지속 집단		.25
		종결 집단		-.27

<표 4>에 의하면 한개의 판별함수식²⁾이 도출되었는데 이 판별함수식에 의한 정준상관은 .25의 상관을 보였다. 또 Wilks Lambda값으로 검증된 판별함수식은 P<.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우정관계 지속집단과 종결집단의 집단중앙치는 지속집단이 .25이고 종결집단이 -.27이었다. 이 집단중앙치는 각 집단의 평균 판별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평균판별점수를 0으로 볼 때 각 집단중앙치의 점수차가 많을수록 판별함수식에 의한 각 집단 분류가 잘 됨을 의미한다. 판별함수식에 의한 우정관계 관련변인별 표준화된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친밀도, 관계헌신정도, 친구특성,

관계특성의 순으로 친밀도의 판별능력이 제일 높았다. <표 5>는 실제 집단과 예측된 집단간의 분류행렬표로 예측된 집단이 실제집단에 정확히 분류된 사례는 전체의 60.19%였다.

<표 5> 실제집단과 예측된 집단의 분류행렬표

(N=206)

실제 집단	예측된 집단	
	지속 집단	종결 집단
지속 집단(n=106)	64(60%)	42(40%)
종결 집단(n=100)	40(40%)	60(60%)

* 분류정확률(hit-ratio) = 60.19%

2) 판별함수식의 수는 판별하는 집단수와 판별변인의 수로 결정된다.

판별함수식의 수 = min{ 집단의 수 - 1, 판별변인의 수 }.

3.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 여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학년에 따른 지속 종결 빈도를 구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에 따른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우정관계 종결 여부는 높은 학년이 낮은 학년보다 종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학년에 따른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 여부
(N=206)

종결여부	학 년		계
	국민학교	중학교	
	5학년	2학년	
	n(%)	n(%)	
지속	68(33)	38(18)	106(52)
종결	34(17)	66(32)	100(49)
계	102(50)	104(51)	206(100)

$\chi^2=19$ df=1 p<.0001

<표 6>에 의하면 상호적 우정관계가 지속된 집단의 비율은 국민학교 5학년이 33% 중학교 2학년이 18%, 종결된 집단의 비율은 국민학교 5학년이 17% 중학교 2학년이 32%로 높은 학년이 낮은 학년보다 종결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어린 아동에 비해 나이든 아동의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 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우정관계 유형에 따라 우정관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우정관계의 관련변인들

이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여부를 판별해 주는지, 또한 아동의 성 및 학년에 따라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주요변인인 우정관계 관련변인을 관계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상호적 우정관계에 있는 아동은 일방적 우정관계에 있는 아동에 비해 자신의 우정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우정관계에 더욱 헌신적이며 친구에 대하여 높은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과 친구가 서로 비슷하다고 지각한다. 본 연구 결과는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다는 기존 연구(Hayes et al, 1980., Ladd & Emerson, 1984., 김영희, 1986.)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평가적 측면과의 관련성이 유사성 하위요인에서만 집단차를 보인 것은 아동의 친구평가는 우정관계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즉, 상호적 우정관계와 일방적 우정관계의 아동 모두 친구의 사려성, 명랑성 및 성실성을 비슷하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상호적 우정관계는 아동이 자신의 우정관계를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관계헌신도 및 친밀도가 낮으며 친구를 덜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종결된다.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 예언력은 친밀도, 관계헌신도, 친구특성 및 관계특성의 순으로 높았다. 즉 친밀도(표준화 판별계수=1.0)의 예언력은 나머지 세 요인이 더해진 예언력(표준화 판별계수=.91)을 능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밀도는 상호작용 빈도와 친구를 좋아하는 정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친구가 싫어지고 상호작용을 덜하게 되며 우정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질때 상호적 우정관계는 종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분석결과는 국민학교 4학년과 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Berndt 등(1986) 및 대학생

을 대상으로한 Berg(198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우정관계의 종결 관련변인으로 Berndt 등(1986)이 제시한 유사성, 호감 및 상호작용 정도 및 Berg(1984)가 제시한 관계만족감, 호감등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내용의 종결관련변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는 상관적 자료의 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우정관계 관련변인들의 변화가 종결을 야기했는지 관계의 종결이 우정관계 관련변인들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켰는지 알수가 없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일방적 우정관계도 포함시켜서 분석한 것이므로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을 예언하는 우정관계 관련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의 간격을 두고 1차 측정시의 우정관계 관련변인 점수로 2차 측정시의 종결여부를 판별하였으므로 인과적 설명을 가능케 하였다.

세제, 아동의 성은 상호적 우정관계의 종결과 무관하나 아동의 연령은 영향적이다. 즉 나이든 아동(중학교 2학년)이 나이 어린 아동(국민학교 5학년)에 비해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비율이 더 높았다. 먼저 아동의 성이 우정관계의 종결과 무관하다는 결과는 Berndt 등(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 중 아동의 성에 따른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들은 관계의 지각(Diaz & Berndt, 1982) 및 기대(Berndt, 1982; Bigelow & La Gaipa, 1975; 박신연, 1989; 정경미, 1992)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는데 즉, 여아는 남아보다 우정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기대하며 친구를 더 좋아하며 친구가 더 친사회적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정관계 관련변인의 지각이나 평가에서 남아의 만족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종결비율에서 성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정관계 종결에 있어서 신중성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

로 나이든 아동이 어린아동에 비해 상호적 우정관계 종결율이 높은 것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급등기로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따라 기분과 정서의 변화가 심하며(Douvan & Adelson, 1966), 발달속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사한 흥미와 태도를 가졌던 친구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사하지 않음을 발견하며(Rubin, 1980) 새로운 친구에 대한 탐색을 더 많이 함으로써 우정관계의 종결비율이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4학년이 1학년 보다(Berndt, 1981), 16-19살의 아동이 11-14살의 아동들 보다(Tompson & Horrocks, 1947, Hartup, 1983 재인용) 우정관계 종결비율이 높았다. Berndt(1982)의 논문에 의하면 4-11학년 사이의 우정관계는 종결되기 보다는 비교적 지속이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학년에 따른 우정관계 종결의 경향성만을 밝혔을 뿐 통계적인 유의성은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선행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우정관계 종결 양상을 밝히기에 다소 미흡했다는 것과 임의추출에 의한 표집으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정관계 관련변인들을 국내 아동들의 자기 진술문에 근거하여 추출함으로써 종래 성인이 제시한 관련변인에 반응케 한 자료에 비해 현실적 자료를 수집한 점과 단기종단적 접근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우정관계 관련변인과 관계종결에 대해 인과적 설명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한 부분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민(1988). 사회조직망내의 대인지각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6). 연령, 성, 친구선택 유형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연(1989).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과 집단내 인기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상문(1992). 중학생의 학급내 교우실태와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윤진(1988). 청년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부, 177-194.
- 이상호·이관용 공역(1987). 성격이론(3판). 서울:중앙적성출판부.
- 이주옥(1984).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미(1992).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A. & Byrne, D.(1991).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6th.eds). A division of Simon & Schuster, Inc.
- Berg, J. H. (1984). Development of friendship among roommates.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 346-356.
- Berndt, T. J. (1981).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08-416.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Hawkins, T. J. & Hoyle, S. G. (1986). Changes in friendship during a school year: effect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impressions of friendship and sharing with friends. Child development, 57, 1284-1297.
- Bigelow, B. J. & Lacaipa, J. J. (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Bucatto, D. & Daehler, M. (1992). Child development. Houghton Mifflin CO. (Boston, London).
- Clarke-Stewart, A., Perlmutter, M., & Friedman, S. (1988). Lifelong Human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Y
- Diaz, R. N. & Berndt T. J. (1982). Children's knowledge of a best friend: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787-794.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Epstein, J. L. (1984). Friend among students in schools: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factors. In Epstein, J. L. & Karweit, Friends in school(eds).

- N.Y:Academic press, Inc.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Mussen, P. H.,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Wiley.
- Hartup, W. W. (1992).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In Harry Mcgturk, Childhood social development:contemporary perspectives(eds). Hove(UK), Hillsdale(USE):Lawrence eribaum associates publishers.
- Hayes, D. S., Gershman, E, & Bolin, L, J. (1980). Friends and Enemies: Cognitieve Bases for Preschool Children's Unilater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1, 1276-1279.
- Hetherington, E. M. & Parke, R. D. (1993). Child Psychology:A Contemporary Viewpoint(4ed). Mcgrow-Hill. Inc. N. Y
- Howes, C. (1983). Patte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 1041-1053.
- Ladd, G. W. & Emerson, E. S. (1984). Shared knowledge in children's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32-940.
- Levinger, G. (1983). Development and change. In Kelly, H.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k, E., Peplau, L. A. & Peterson, D. R., Close relationships (eds) (pp. 315-359). New York:W. H, Freeman.
- Rubin, Z. (1980). Children frienships. Massachusetts:Harvard University Press.
- Sharabany, R., Gershori, R. & Ho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 800-808.